

# 04년생?...KIA 최형우 “여름 무섭지 않다”



‘42세 베테랑’ 타율·홈런·타점·결승타 ‘팀내 1위’  
주전 타자 중 유일하게 시즌 공백없이 풀타임 소화  
“성장통 겪는 후배들 경험 쌓아가며 기복 줄였으면”

여름이 두렵지 않은 ‘최고참’ 최형우의 유일한 걱정은 ‘후배’ 들이다.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중 한 명이다. 25일 키움전까지 82개의 안타를 수확하면서 0.324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는 14개의 공은 담장 밖으로 넘겼다. 50타점을 수확한 그는 8차례 팀의 승리를 책임지는 결승타도 장식했다. 타율, 홈런, 타점, 결승타 모두 팀내 1위다.

42세 베테랑의 놀라운 기세에 팬들과 동료들은 ‘04년생 최형우’라고 부를 정도다.

날이 더워지면서 팬들은 실 틈 없이 타선을 지키고 있는 최고참을 걱정하지만 정작 최형우는 “여름이 더 좋다”고 말한다.

최형우는 “힘들지 않다. 여름이 더 좋고 힘든 것은 없다. 수비를 안 나가면 그렇게 힘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놀라운 페이스로 달리고 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레전드 타자도 ‘타격 사이클’은 피할 수 없다.

최형우는 “한 2-3주 페이스가 떨어졌었다. 6월 초부터 하나씩 치고 타점이 2주 넘게 없었을 것이다. 그때 1주일 정도 열심히 쳤다. 그런데도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틀인가 쉬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타격 슬럼프, 여름 더위를 넘기고 있는 그의 걱정은 ‘후배’ 들이다.

올 시즌 KIA 주전 타자 중 최형우만 유일하게 공백이 없었다.

주장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재활군이 됐고, ‘타격 천재’ 김선빈도 종아리 부상으로 두 번째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 ‘MVP’ 김도영도 좌우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휘를 감했다.

최형우와 함께 ‘임시 주장’으로 팀을 이끄는 박찬호도 시즌 초반 슬라이딩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잠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안방 마

남’ 김태군도 폐렴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적이 있다.

후배들의 이어지는 부상에 속을 끓인 최형우는 기회를 얻은 선수들의 성장통을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후배들과 또 다른 가을 잔치를 꿈꾸고 있는 만큼 될 듯 말 듯 경계에 서있는 후배들이 안타깝다.

최형우는 “후배들이 업다운이 심하다. 경험이 없는 것도 있고, 노하우를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기복이 심하다. 조금 더 폭을 줄이면 좋겠다”며 “후배들이 잘해주고는 있다. 열심히도 한다. 경기 끝나고도 미친 듯이 치기도 한다. 후배들도 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애들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한 것이다”고 말했다.

일단 투수들의 힘이 좋은 만큼 야수들이 조금만 더 자신 있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최형우는 “투수진이 좋아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자들이 점수를 빼면 3-4점 정도다”며 “나이가 있으니까 코치, 감독으로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성에 안 차는 것도 있다. 더 이길 수 있는데, 여기서 방향이 내면 타점인데 삼진 먹고 그러면 답답하다”고 웃었다.

팀의 저력을 알기에, 후배들의 가능성을 믿기에 답답한 최형우. 그래도 오선우의 활약에는 최형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최형우는 “원래 자기가 가진 것이 있는 후배다. 올라오면 1주일 2주일 반짝하고 슬럼프에 빠지고 그래서 문제였지, 기술적인 것은 나쁘지 않았다”며 기복 많은 후배들 사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오선우의 활약에 반색했다.

최형우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때도 있고, 쉬어야 할 때도 있다. 이런 것은 후배들이 직접 시합을 하면서 느껴야 하는 것이다. 후배들이 느끼면서 배우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베테랑 최형우가 나이를 잊은 활약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최형우는 주전들의 부상 공백으로 기회를 얻은 후배들이 승리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광주FC, 안양전 무패행진 잇는다

2019년 10월 이후 6경기 무패  
28일 안양서 K리그1 21라운드



광주는 28일 오후 7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가나나은행 K리그1 2025 21라운드 FC 안양과의 맞대결을 갖는다.

좋은 기억을 살려 승리 사냥에 나서는 광주다.

광주는 안양과의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맞대결부터 6경기에서 패배를 잊었다.

이정호 감독도 광주 지휘봉을 들고 지휘한 안양전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는 이번 경기를 통해 5위 진입을 노린다.

6위 광주는 지난 22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올 시즌 전적이 7승 7무 6패(승점20)다 됐다. 7위 FC서울과 승점 1점 차, 5위 울산HD도 승점 1점 차 안에 있다.

앞선 대전전 무승부 결과는 아쉽지만 공격진의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됐다.

광주는 이날 후반 10분 선제골을 기록했다. 아사니가 헤이스와 환상적인 호흡으로 패스를 주고받은 끝에 기록한 골이었다.

승부가 1-1 원점으로 돌아간 후반 26분에는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된 박인혁이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아사니는 박인혁의 골에 관여하면서 1골 1도움의 활약을 했다.

이날 광주는 10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5개는 유효슈팅으로 장식하는 등 뜨거운 화력을 보여줬다.

A매치 휴식기에 앞서 치르는 리그 마지막 경기라는 점에서도 승리가 간절하다. 개막과 함께 ACLB 일정까지 병행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광주는 안양전에 이어 7월 2일 울산HD와의 코리아컵 8강을 치른 뒤 끝맛 휴식을 취하게 된다. 기본 좋은 휴식기를 보내기 위해 안양전 승리가 필요하다.

광주는 A매치 휴식기 이후 7월 18일 수원FC와의 경기를 통해 리그 일정을 재개하게 된다.

6월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된 광주가 매서워진 발끝으로 안양전 무패 행진 속 순위 상승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r



광주FC 박인혁(앞)이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후반 26분 득점한 뒤 아사니와 함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기성용 “서울 떠나 포항서 새출발 합니다”

구단 계약 조기 종료 발표...팬들, 근조화환 보내며 강력 반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을 떠난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36·사진)이 서울과의 결별 과정을 밝히고 새로운 거처가 포항 스틸러스임을 직접 알렸다.

기성용은 25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사랑하는 FC서울 팬들께’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서울과 동행을 마무리하고 포항에서 새 출발 하기로 한 과정을 밝혔다.

앞서 서울은 이날 “구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영원한 캡틴 기성용과의 인연을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기성용과의 이별을 공식 발표했다.

기성용은 서울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11년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뒤 2020년 여름 K리그로 돌아오면서 서울 유니폼을 입었다.

K리그에서 올해까지 10시즌째를 보내며 기록한 통산 198경기 14골 19도움을 모두 서울에서 작성했다.

기성용은 먼저 “얼마 전, (서울 김기동) 감독님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팀의 계획에 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은퇴해야 하는 시점이구나 생각하게 돼 그럼 은퇴하겠다고 감독님께 말씀드



렸고 감독님께서 제 뜻을 존중해 주셨다”고 서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기성용은 이어 ‘아직은 충분히 더 뛸 수 있다’는 가족과 주위 축구인들의 만류, 더 뛰고 싶은 솔직한 마음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간을 보내면서 “선수로 마지막 무기력하게 끝내기보다 기회가 된다면 최선을 다해 그라운드를 누비고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는 것이 팬들에 대한 보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적었다. 그러고는 “포항 박태하 감독님께서 가장 먼저 선뜻 제가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고 이적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땀어주신 박태하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구단 레전드인 기성용의 이적 소식이 서울 팬들은 훈련장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모기업 GS그룹 건물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메시 연봉, 21개 팀 보수 총액보다 많네

278억원으로 美 MLS ‘연봉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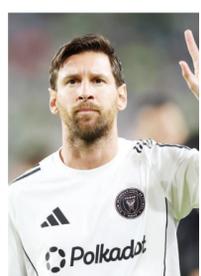
올해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연봉킹’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사진)였다.

메시는 메이저리그사커선수협회가 25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연봉 자료(5월 23일 기준)에서 2004만6667달러(약 278억원)로 3년 연속 리그 최고 연봉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메시의 기본 연봉은 1200만달러다.

연봉 총액은 2025시즌까지 적용되는 MLS 계약, 마케팅 보너스 및 에이전트 수수료가 포함된 액수다. 팀이나 계약사와의 추가 계약이나 성적에 따른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메시의 연봉 총액은 MLS 30개 구단 가운데 21개 팀의 보수 총액을 웃돈다.



MLS 선수의 평균 기본 연봉은 64만9120달러로 지난해 5월 발표(59만4389달러) 때보다 9.2% 늘었다. 메시가 버틴 마이애미는 4684만 달러로 역대 최고 연봉을 기록하며 리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시즌 말 발표 때는 4170만 달러였다. 마이애미의 연봉은 2위 토론토 FC(3415만달러)와 3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2763만달러)를 제외한 MLS 27개 팀의 두 배 이상이다.

/연합뉴스